

제6차 수출전략회의 ❸
(공개)

 역동경제로
서민·중산층 시대 구현!

2025년 중소·벤처기업 수출지원 방안

2025. 2. 18.

관 계 부 처 합 동

2025 중소·벤처기업 수출지원 방안 (요약)

1. 추진배경

- 수출 中企은 여전히 높은 성과를 창출하며 우리 경제에 기여
 - * '22년 전체 중기 대비 (평균매출) 16.9배, (영업이익) 1.4배, (평균고용) 5.2배
- '중소기업 글로벌화 대책('24.5)'을 통해 중소기업 수출 정책을 테크서비스 수출, 해외진출 등 글로벌화 전반으로 확장
 - * 혁신형 내수기업 수출기업화, 테크서비스 수출기업 정책대상 편입 등 발표
- 고환율, 트럼프 2기*, '24년 중소기업 수출 현황** 등 다양한 대내외 환경변화 및 변수를 고려하여 수출 정책 보완·강화 필요
 - * 美 중국에 추가로 10% 보편적 관세 부과(24), 美 수입하는 모든 철강알루미늄에 25% 관세 부과(21)
 - ** '24년 中企 수출 1위 국가 변화(중국 → 미국), 한류 및 고기술·혁신품목, 테크서비스 수출 확대

2. 중소기업 수출 현황 및 여건

- '24년 中企 수출은 역대 2위(잠정치), 수출 기업수 1위로 선전
 - * 수출액(억달러) : ('21) 1,155 → ('22) 1,145 → ('23) 1,097 → **(24) 1,151** (+4.9%)
 - * 기업수(개사) : ('19) 95,229 → ('22) 92,448 → ('23) 94,463 → **역대 1위 (24) 95,905** (+1.5%)
- 기업·품목·국가 등 중소기업 수출 지형 변화 양상은 심화
 - ① (기업) 수출 '多진입多퇴출' 구조 심화, 수출 초보기업 퇴출율 상승
 - ② (품목) 일부 주력품목 수출감소, 반면 소비재, 혁신분야 수출 증가
 - ③ (국가) 미국·신흥국 수출 증가, 주요 수출품목은 국가별로 차별화
- 고환율, 트럼프 2기 출범 등 대내외 불안정한 상황 지속
 - * 고환율에 따라 부품·자재를 수입하는 수출기업, 해외진출 기업 등이 영향·피해 우려
 - * 美 보호무역주의 강화, 對中 견제 강화 등 글로벌화 환경 급변 우려

❖ 現 중소기업 수출현안에 신속대응하고, 향후 대외 환경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탄탄한 중소기업 수출구조 확립

3. 세부 추진과제

◆ [현안 대응] 트럼프 2기 대응 지원체계 운영

1] 수출 중소기업 애로 완화 : 애로센터 운영, 긴급지원 및 영향품목 특별관리

- ① 전국 13개 지방청(15개 수출지원센터)에 「애로신고센터」 설치·운영 (‘25.2~)하고, 고관세·고환율·수출규제 등 피해 접수·상담·해소
 - * 미해결 애로는 글로벌화 원팀협의체, 원스톱수출·수주지원단 연결
 - 향후, 관세부과 시행으로 경영애로 발생 중소기업에 대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
 - 트럼프 2.0, 글로벌 공급망 대응 등을 위해 수출다변화를 추진하는 중소기업*은 정책자금 평가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 지원
 - * 지방중기청에서 수출다변화 등을 위해 신속 지원이 필요한 기업을 중진공에 추천
 - ** 수시 신청·접수 및 심사 패스트트랙 적용 등
 - 수출바우처의 물류비 지원한도 상향* (3천→4천만원) 검토
 - * 추후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 및 환율 상황을 반영하여 결정
- ② 미국의 각국에 대한 관세 부과 및 각국의 대응 조치 등에 따른 중소기업 수출영향 50개 내외 품목 선별 및 특별관리 추진(‘25.상)
 - * 중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부과에 따라 수출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수출 품목 10개에 대해 시범 추진(‘25.3, 수출국다변화 정보·컨설팅 제공)

2] 해외진출 지원 : 美 실리콘밸리에 해외진출 거점 구축, 공급망 재편 대응을 위해 해외진출기업 정책 자금 최초 지원

- ① 공급망 재편 대응 등을 위한 해외진출 3단계 지원체계 운영
 - (국내준비) 수출바우처를 통해 해외진출 사전 준비사항 종합 컨설팅
 - (진출초기) GBC 추가 개소(‘25. 1개), 실리콘밸리에 「해외진출 통합 지원 거점」 시범 구축(‘25.하)
 - * GBC(중소기업 경영지원), KSC(스타트업 보육), KVIC(투자유치 지원) 기능을 통합제공

- (현지정착)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법인에 대한 정책자금 최초 지원*(‘25. 600억원), 해외진출 기업 보증 확대(‘24. 100 → ‘25. 300억원)

* GBC·KSC가 있는 국가에 시범적으로 추진

- ② 재외공관 원팀 협의체, 해외거점(GBC 등)을 통해 미국의 對중국 수출규제 정책 등 국가별 정책 변화 정보 선제적 발굴·제공

◆ [구조 개선] 환경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중소기업 수출구조 확립

1] 안정된 수출 中企 확대 : 수출 100만\$ 이상 1,000개사 육성(‘25년)

- ① 수출액 100만\$ 미만 유망 초보기업을 대상으로 부족한 수출 노하우를 밀착 지원*, 수출액 100만\$ 기업으로 1,000개사 육성(‘25)

* 무역 전문가 등 전문인력 활용 현장컨설팅, 국내 및 해외 멘토단 구성·운영

- ② 혁신형 내수기업 ‘25년 200개사 수출기업화(수출전략수립 지원)

2] 수출 외연 확장 : 테크서비스 수출, K-뷰티 및 3대 新한류 전략품목 육성

- ① 기존 제품 중심 수출 지원을 테크서비스 수출로 본격 확장

구분	테크서비스 수출 주요내용
비용지원	▶ 「테크서비스 전용 수출바우처」 신설·운영 : ‘25, 140억원
현지진출	▶ 「테크서비스 K-혁신사절단」 운영 확대 : ‘24. 1회 → ‘25. 5회
	▶ 테크서비스 관련 해외전시회 참여 확대 : ‘24. 6개 → ‘25. 10개 내외

- ② 글로벌 No.1 K-뷰티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단계별 총력 지원

- (수출초기) 민관협업 유망기업 발굴, 자금·정보 부족 완화 등

구분	‘25년 주요 추진과제
민관협업	▶ K-뷰티 크리에이터 챌린지 : 美(아마존) → 동남아, 일본 등 플랫폼 확대
	▶ K-뷰티 슈퍼루키 워드영 : (‘24) 20개사 → (‘25) 100개사
자금, 마케팅	▶ K-뷰티론 신설(‘25.2, 200억원) ▶ 정책면세점에 명품 K-뷰티관 신규개소(‘25)
정보제공	▶ 민관협업 뷰티 컨퍼런스(‘25.3) ▶ 수출규제 상담인력 확대(4명→8명)

- (수출성장) 美 FDA 화장품 인증 및 할랄인증 지원강화, 「K-수출전사 1,000 프로젝트」를 통한 별도 마케팅 인력 연계
- (글로벌 No.1) K-뷰티 전용 R&D 트랙 신설, K-뷰티 펀드 신설, K-뷰티 국제박람회 개최 등 글로벌 프리미엄급 위상확보

③ 중소벤처기업 3대 新한류품목 선별 및 특화 프로그램 도입

- 의류·신변잡화, 패션잡화(주얼리 등), 문구·완구 3대 품목 육성
 - * 중소기업 수출 품목별 수출의 50% 이상,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선별
- 현지 글로벌 유통망 입점을 위한 「^{가칭}K-한류명품사절단*」 도입
 - * 영문 상품제안서 마련, MD 1:1 상담, 계약협상 지원, 물류 및 수출절차 지원
- 한류 연계한 해외 판촉전 개최('25. KCON 등 4회 내외) 및 관련 해외 전시회 참여('25, 21회) 지원

[3] 주력·신흥시장별 수출 가속화 : 지역기반 수출전략 프로젝트 도입

① 신흥시장·지역별 글로벌화 프로젝트 시범 도입

- 4대(아세안, 중동, 인도, 중남미) 신흥시장 대상으로 해당지역별 전략 수출품목 선정 및 차별화된 프로그램 시범 운영('25)
- 국가별 경제정책 및 수출환경에 맞추어 특화된 프로그램 운영

구 분	국가별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(안)
사전준비	▶ 국가별 특성에 맞춰 K-혁신사절단을 현지진출 및 투자유치형, 현지 유통망 편입형, 정부조달 참여형, 바이어 발굴형 등으로 구분 운영
현지지원	▶ 해외거점(GBC재외공관 원팀 협업체)을 통해 대상 국가별 특화 지원 프로그램 운영
정보제공	▶ 국가별 시장현황, 현지진출 절차, 정부 제도·유통구조 등 정보 제공

② 중소기업 수출 주력시장 (미·중·일·베)에서 수출이 감소(예정) 중이나, 수출국 다변화를 통해 반등이 가능한 14개 품목 선별 지원

* '19~'23년(5년간) 中企 수출 100대 품목 중 경쟁력은 있으나, 수출 감소품목

⇒ 대상품목에 대해 ①수출다변화(정보제공, 수출 및 해외진출 컨설팅 지원) + ②고부가가치화(R&D, '25. 185억원) 지원

◆ [지원 인프라] 네트워크 · 협력 기반 글로벌화 촉진기반 마련

1] 글로벌화 정보제공 및 현장 소통채널 구축

① 재외공관 주재, 「중소·벤처기업 지원 협의체」 기능 대폭 강화

- 재외공관 주재, 원팀 협의체를 통해 수출 및 현지 진출 과정의 애로 해결, 정보 제공 등 협력강화

구분	주요내용
재외공관 협의체 운영실적(25.1월말)	· ① 공관장 주재 회의 개최 64건, ② 협의체 참여기관의 지원을 통한 기업 애로해소 361건, ③ 주재국 정보제공 515건
지원사례	· 영국 진출 희망 스타트업 A사(패션 플랫폼)는 현지진출을 위한 제도 파악 및 법인 설립 등에 애로 → '런던 원팀 협의체'에 도움 요청 → 주영국대사관을 중심으로 현지 비즈니스 정보제공(KOTRA), 현지 법인 설립 및 비자 신청 지원(현지 로펌), 영국 현지계좌 개설지원(하나은행 런던지점), 유럽 VC 3개사 및 투자기관 연결·영국정부 투자유치 프로그램 연결·런던 정착 유관기관 연결(KVIC) → 영국 현지법인 설립 완료('24.7.10)하고 성공적 현지 진출

- 재외공관이 현지 진출기업에 ▲정보제공, ▲협력기회 발굴, ▲애로해소 등 현지 안착을 직접 지원('25년, 7억원)
 - 유망 스타트업의 주재국 특화 프로그램(IR 투자유치, 네트워킹 등)을 통한 현지 창업 생태계 편입 및 진출 지원
- ② 원팀 협의체에서 발굴한 해외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'글로벌 네비게이터' 구축('25.2~)
- ③ 현장의 목소리를 적기 파악·모니터링하기 위해 중소기업 주요 업종(품목)별 대화채널 구축('25.하)
- * 협단체(중기중앙회, 15개 수출지원센터 등) 내 업종(품목)별 분과 협의체 구축

2] 중소·벤처 분야 글로벌 정책 협력 채널 확대

- ① '25년 21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 개최 하여, 우리 중소기업의 혁신성 홍보('25.9.1~5, 제주)
- ② 인니, 말련 등과 양국 공동 중소벤처 위원회 신설 추진

순 서

I . 추진배경	1
II . 중소기업 수출 현황 및 여건	2
III . 추진 방향	5
IV . 세부 추진과제	6
1. [현안대응] 트럼프 2기 대응 지원체계 운영	6
2. [구조개선] 中企 탄탄한 수출구조 3대 전략 추진	9
3. [지원인프라] 네트워크·협력기반 글로벌화 촉진 ..	16
V . 향후 추진일정	19

I. 추진배경

□ 수출은 우리 경제와 중소기업 성장의 핵심

- 수출 中企은 여전히 높은 성과를 창출하며 우리 경제에 기여
 - * '22년 전체 중기 대비 (평균매출) 16.9배, (영업이익) 1.4배, (평균고용) 5.2배
- 특히, 중소기업 수출은 '17년부터 8년 연속 1,000억불 돌파
 - * 中企 수출(억\$) : ('17) 1,032 → ('19) 1,009 → ('21) 1,171 → ('23) 1,097 → ('24¹) 1,151

□ 환경변화 대응을 위해 '24.5월 중소기업 글로벌화 대책 마련

- 중소기업 수출이 1,100억 달러 박스권에 갇힌 상황에서, 보호무역주의 심화, 디지털전환 가속화 등 글로벌화 대응과제는 증가
 - 이에, '중소기업 글로벌화 대책('24.5)'을 통해 중소기업 수출 정책을 테크서비스 수출, 해외진출 등 글로벌화 전반으로 확장
- ⇒ '24년은 대책 이행기반* 마련 및 추진**, '25년부터 본격 추진 중
- * 중소벤처기업 글로벌화 원팀 협의체 구축, 신규 정책 기획 및 '25년 예산 반영 등
 - ** K-혁신사절단 신규 도입, 수출 고성장 프로그램 신설, 주요국 장관급 협의체 신설 등

□ 또 다른 환경변화의 위협 : '25년 지원방향 보완 추진 필요

- 고환율, 트럼프 2기 등 다양한 대내외 환경변화*가 발생하고, 수출국 편중 등 中企 수출구조 한계로 인해 대응 어려움 심화
 - * 美, 중국에 추가로 10% 보편적 관세 부과(2.4), 美 수입하는 모든 철강알루미늄에 25% 관세 부과(2.11)
 - * '24년 中企 수출 1위 국가 변화(중국 → 미국), 한류 및 고기술혁신품목, 테크서비스 수출 확대
- 이러한 다양한 변수로 수출 둔화 전망*, 중소·벤처기업의 수출 성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정책을 보완·강화 필요
 - * '25.1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지수('24.12, 무역협회) : 96.1로 4분기 만에 기준선 100을 하회

II. 중소기업 수출 현황 및 여건

□ '24년 중소기업 수출은 역대 2위, 수출 기업수 1위로 선전

- 중소기업 수출은 '21년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2년 연속 감소했으나, '24년 수출액은 1,151억\$로 역대 2위를 기록하며 반등

* 수출액(억달러) : ('21) 1,155 → ('22) 1,145 → ('23) 1,097 → ('24) 1,151 (+4.9%)

- 수출 중소기업 수는 95,905개사로 역대 최고치 기록

* 기업수(개사) : ('19) 95,229 → ('22) 92,448 → ('23) 94,463 → 역대 1위 ('24) 95,905 (+1.5%)

□ 중소기업 수출 지형 변화 양상은 심화

① (기업) 수출 '多진입多퇴출' 구조 심화, 수출 초보기업 퇴출을 상승

- 신규 수출기업은 '21년 이후 지속 증가, '24년 25,000개사 기록

* 신규수출(개사) : ('20) 25,688 → ('21) 23,165 → ('22) 23,449 → ('23) 24,825 → ('24) 25,000, 0.7%↑

- 수출 중단기업도 최근 증가*, 수출규모 작은 기업의 중단 심화**

* 수출중단기업(개사) : ('20) 26,017 → ('21) 25,951 → ('22) 23,115 → ('23) 22,810 → ('24) 23,558, 3.3%↑

** '23년 대비 수출액 구간별 중단기업 증가율(24, %) : (100만\$ 미만) 7.7% >> (100만\$ 이상) 0.9%

② (품목) 일부 주력품목 수출감소, 반면 소비재, 혁신분야 수출 증가

- (주력품목) 수출을 이끌어오던 전통산업 관련 품목 수출 하락

* '24년 상위 10대 수출품목 중 5개 품목(플라스틱제품, 합성수지 등)이 '14년 대비 감소

- (혁신분야) 고기술·혁신 품목, 테크서비스 수출 확대

* 수출액('14→'24, 억\$) : 반도체제조용장비(14.2→39.6), 전자응용기기(18.9→26.5)

* 서비스 수출액증감률(억\$/% 한은) : ('22) 1,316 (+9.7) → ('23) 1,257 (△4.5) → ('24) 1,390 (+10.6)

- (소비재) 한류 등으로 소비재 수출 급증, K-뷰티는 역대 1위

* 中企 수출액('23→'24, 억\$) : (중간재) 626→651 +4.0%, (소비재) 216→242, +12.1%

* 中企 화장품 수출액('23 →'24, 억\$) : 53.2 → 역대1위 68.0(+27.7%)

③ (국가) 미국·신흥국 수출 증가, 주요 수출품목은 국가별로 차별화

- 미국은 화장품·자동차부품 등 수요 확대로 최대 수출시장으로 등극, 중국은 소비둔화, 중간재 자급률 상승으로 2위로 하향

* '24년^P 中企 수출액 : (미국 : 수출 1위 국가) 187.4억\$, (중국) 183.9억\$

- 인도, 중남미, 중동 등 신흥국 수출도 상대적으로 높게 증가

* 최근 5년 권역별 中企 수출 증가율(%) : (전체) +34 vs. (인도) +7.4 (중남미) +7.2 (중동) +7.0

- 국가별로 다른 경제상황, 우리 중소기업 생산 품목 다양화 등에 따라 과거와 달리 각국으로 수출되는 주요 수출품목 상이

- 이에 따라, 개별기업이 국가정책 및 품목별 수출환경 등 복잡한 정보를 분석하여 수출하는 어려움 가중

* (중남미) 신재생 관련 장비·설비, 농업(비료), 보건의약품 수요 증가
(중동) 자동차부품, AI 솔루션·컨텐츠 수요 증가

⇒ 중소기업 수출지형 변화 양상에 맞춰 중소기업 수출 정책도 정책 외연 확장(테크서비스 등) 및 국가별 타겟 지원 등 개편 추진

□ 고환율, 트럼프 2기 출범 등 대내외 불안정한 상황 지속

- (고환율) 달러화 강세, 국내 정치리스크 등에 따라 '09.3월 이후 15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

* '09.3.16. 1,488.0원 → '24.12.31. **1,477.0원** → '25.2.13. **1,443.0원**

- 부품·자재를 수입하는 수출기업, 해외진출 기업 등이 고환율에 영향·피해를 받을 것으로 예상

* 수출 중소기업 긴급현황조사(12.10~13, 513개사, 중기중앙회) : 고환율에 따라 부정적 영향을 받는다고 응답한 기업이 57.9%

- (트럼프 2기) 美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글로벌화 환경 급변 우려

- 미국의 對中 견제 강화로 인한 반사이익, 보편적 관세부과로 인한 수출 가격경쟁력 하락 등 기회와 위기요인 상존

⇒ 현재의 환경변화에 즉각 대응을 위한 신속 지원체계 구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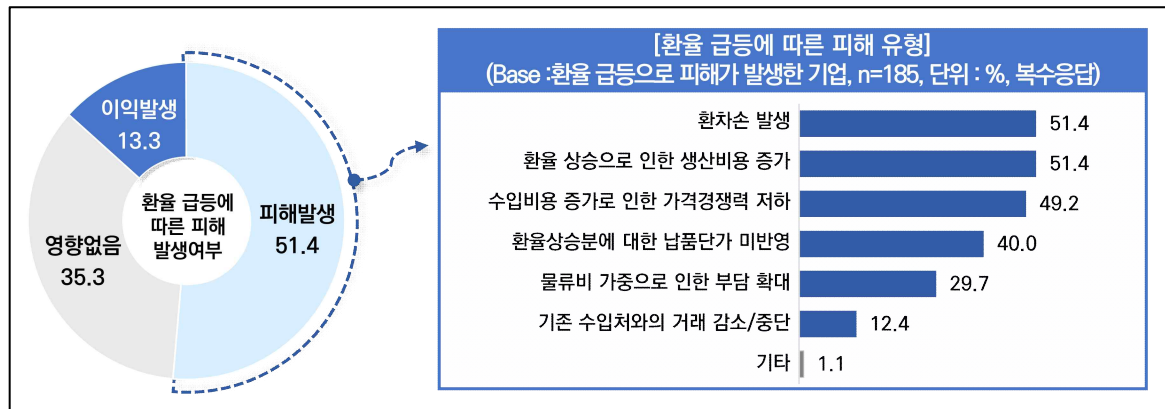
【참고①】 고환율 관련 중소기업 영향 설문조사 결과

○ 조사개요(중기부·중기중앙회)

- * 목적 : 高환율에 따른 중소기업의 피해 현황 및 애로사항 조사
- 기간 : '25.1.13. ~ 1.22.
- 대상 : 수입·수출 중소기업 300개사

○ 조사결과

- 최근 환율이 급등하여 '피해가 발생'한 기업은 51.4%로 조사



- 환율 상승에 대해 필요한 정책(복수응답)

- * 대출만기연장 및 금리인하(42.8%), 운임 및 선복 등 물류지원 확대(26.7%), 환변동 보험 및 무역 보증 지원(26.1%), 바이어 발굴 등 수출 마케팅 지원 확대(16.9%) 順

→ 중소기업 고환율 피해 최소화 지원방안은 「범부처 수출대책」에 포함

【참고②】 트럼프 2기 출범 관련 설문조사 결과

○ 조사개요(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)

- * 목적 : 美 대선 결과에 따라 기업애로와 정책수요 파악
- 기간 : '24.11.20. ~ 11.27.
- 대상 : 미국·중국 수출 중소기업 등 3,000개사(316개사 응답, 10.5%)

○ 조사결과

- 준비수준 : 트럼프 2기 출범 대응 준비 중소기업은 23.7%
- 긍·부정인식

긍정요인	부정요인
•중국산 제품 규제 반사이익으로 대미 수출증가: 44.9% •친환경 규제 완화(기후합정탈퇴)로 수출규제 완화: 8.9% •미 제조업 육성 정책으로 원자재 수출 증가: 7.3%	•관세부과로 인한 수출품 가격경쟁력 하락 : 41.8% •환율 변동성 증가 : 15.5% •중국 견제로 인한 중국산 원부자재 사용 제약 : 12.3%

Ⅲ. 추진 방향

핵심 목표

- 중소기업 수출액 (억불) : ('24^p) 1,151 → ('25) 1,170
- 수출 중소기업 수 (개사) : ('24^p) 95,905 → ('25) 97,600

추진방향

現 중소기업 수출현안에 신속대응하고, 향후 대외 환경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탄탄한 중소기업 수출구조 확립

1 고환율·트럼프 2기 출범 등 대내외 수출 현안에 신속대응

2 중소기업의 탄탄한 수출구조 확립을 위한 3대 전략 추진

3 중소벤처기업 글로벌화 원팀 협의체 기능 강화로 정책 뒷받침

추진과제

트럼프 2기 대응 지원체계 운영

- 1 수출 중소기업 애로 완화
- 2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
해외진출 지원

흔들림 없는 튼튼한 수출구조 확립

- 1 수출 초보기업 성장
수출 100만 불 이상 안착
- 2 수출 외연 확장
제품 중심 → 테크서비스, 해외진출 등
- 3 수출 국가 다변화

정책 뒷받침을 위한 지원 인프라 강화

- 1 국내외 원팀 협의체 기능 고도화
- 2 중소·벤처분야 글로벌 정책 협력 채널 확대

IV. 세부 추진과제

1. [현안 대응] 트럼프 2기 대응 지원체계 운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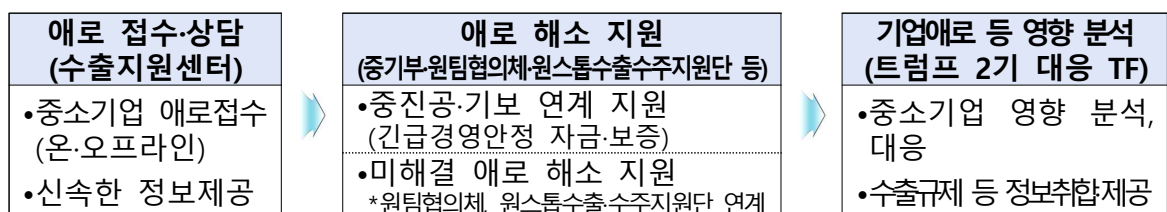
①

수출 중소기업 애로 완화

◇ 애로신고센터 운영 및 애로 해소 지원('25.2~)

- (애로 접수) 전국 13개 지방청(15개 수출지원센터)에 애로신고센터 설치·운영('25.2~)
 - 美 관세조치 등에 따른 피해 접수·상담 및 관련정책 연결
 - 미해결 애로는 글로벌화 원팀협의체, 원스톱수출·수주지원단 연결
- (피해 지원) 피해기업 경영 정상화 및 수출국 다변화 등 지원
 - 관세부과 시행 (멕시코, 캐나다, 철강 등) 등에 따른 경영 애로발생 중소기업에 대한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지원 검토
 - 트럼프 2.0, 글로벌 공급망 대응 등을 위해 수출다변화를 추진하는 중소기업*은 정책자금 평가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 지원
 - * 지방중기청에서 수출다변화 등을 위해 신속 지원이 필요한 기업을 중진공에 추천
 - ** 수시 신청·접수 및 심사 패스트트랙 적용 등
 - 수출바우처의 물류비 지원한도 상향* (3천→4천만원) 검토
 - * 추후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 및 환율 상황을 반영하여 결정
- (영향 분석) 민관합동 '트럼프 2기 행정부 대응 TF' 구성·운영('24.11~)
 - * 중기부(지방청)·유관협단체·전문가 등으로 구성
 - ** 美 관세조치 등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대응방안을 검토, 관계부처와 협업 지원

< 애로해소 지원체계 >



◇ 트럼프 2기 영향 수출품목 특별관리

- 미국의 각국에 대한 관세 부과 및 각국의 대응 조치 등에 따른 중소기업 수출영향 품목 선별 및 특별관리 추진(50개 내외 품목, '25.상)
- 관세부과 국가로 수출되는 주요 품목 영향을 분석하고, 관련 품목별 협·단체와 협업하여 애로 파악 및 대응방안 마련 추진

※ 예시 : (수출감소) 관세가 부과된 국가의 對미 수출 감소에 영향 받는 품목
(수출증가) 각국 관세부과에 따라 미국 수출 반사이익을 얻는 품목
(복합) 관세 부과에 따른 가격경쟁력 저하 및 반사이익 모두 발생 품목

- 중국에 대한 미국의 추가 관세부과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수출 품목 10개에 대해 시범 추진('25.3)
- 해당 품목 관련 수출국 다변화 정보 및 컨설팅 제공
 - * 트럼프 1기 미국의 중국에 대한 관세부과(슈퍼301조)에 따라 對중 수출이 감소한 우리 중소기업 수출품목 (미국 수출이 감소한 중국 최종재 등에 공급되던 품목)
 - 품목 예시 : 플라스틱 제품(폴레에스테르 제품), 전자응용기기(광섬유 케이블) 등

②

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 해외진출 지원

◇ 해외진출 3단계 지원체계 운영

-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국내거점 기반 해외진출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해외진출 체계적 지원

* 中企 해외 신설법인 수(개사, 수출입은행) : ('20) 1,394 → ('23) 1,704 → ('24.3분기) 1,370

< 해외진출 단계별 지원체계 >

1단계 국내준비	2단계 진출초기: 입주+경영	3단계 현지 정착: 운영비용
■ 해외진출 지원서비스 패키지 지원	■ 해외진출 통합 거점 구축 ■ GBC 확대 개소	■ 국내 중소기업의 현지법인 운영자금 최초지원 등

- ① (국내준비) 해외진출을 위해 사전에 준비해야할 사항을 종합적으로 컨설팅해주는 해외진출 지원 서비스 패키지 제공

* 수출바우처 내 현지시장조사, 법률·세무컨설팅, 현지서류대행 등

② (진출초기) 진출 초기 입주공간 및 경영서비스 제공 거점 확대

- 실리콘밸리에 현지 VC연결, 스타트업 보육 등을 일괄지원하는 “해외진출 통합 지원거점*” 구축 (‘25.하)

* GBC(중소기업 경영지원), KSC(스타트업 보육), KVIC(투자유치 지원) 기능을 통합제공

- 글로벌비즈니스센터(GBC) 확대(21개소 → 22개소) 및 KSC가 없는 지역에서 GBC의 스타트업 지원 기능 보장*

* KSC 단독 운영 거점 : 파리, 싱가포르, 시애틀

* 스타트업·테크서비스 기업 현황 (‘24.12월 기준) : (뉴욕) 14개(82.4%), (리야드) 15개(75%), (베이징) 7개(58.3%), (프랑크푸르트) 10개(62.5%)

③ (현지정착) 안정된 현지정착을 위한 현지법인 운영비용 지원

- 국내 中企 해외법인에 대한 정책자금 최초 지원(‘25, 600억원, 중진공)

* GBC·KSC가 있는 국가에 시범적으로 추진

- 해외진출 기업 보증 지원 확대(‘24, 100억원 → ‘25, 300억원, 기보)

◇ 해외진출 등 국가별 정책 변화 정보 신속 제공

○ 로펌 등 전문성을 활용한 해외진출 정보제공 강화

- 해외진출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노무·법무·규제 등 분야별 자주하는 질문(FAQ) 제작·제공(‘24년 6개국 → ‘25년 10개국)

- 중소기업이 이해하기 어려운 변화되는 해외규제·정책 등에 대해서는 별도 안내서 제작(‘25.상)

* ‘중소벤처기업 글로벌화 원팀 협의체’ 참여 로펌 등과 협업 제작

○ 재외공관 원팀 협의체, 중소기업 현지거점 등을 활용하여 미국의 對중국 규제 정책 등 변화되는 정책정보 선제적 발굴·제공

* 현지거점(GBC)별 정보분석 역할분담 : (워싱턴 GBC) 정부 정책 일반, (시카고 GBC) 바이오, 의료기기, (뉴욕 GBC) 테크서비스, (LA GBC) 뷰티, 푸드 등 소비재

2. [구조 개선] 중소기업의 탄탄한 수출구조 3대 전략 추진

- ❖ 수출 초보기업 밀착지원 ⇒ 안정된 수출기업 확대·다양화
- ❖ 기존 제품 중심 수출 지원체계 개편·확장
⇒ 테크서비스, 해외진출, 新한류품목 수출 본격 지원
- ❖ 주력·신흥시장별 전략적 수출 지원체계 도입
⇒ 신흥시장 수출 가속화, 중국 수출 감소폭 완화

①

안정된 수출 중소기업 확대 · 다양화

◇ 수출 초보기업을 수출 100만\$ 이상 기업으로 육성('25년 1,000개사)

↳ '24.5월 글로벌 대책 : 수출 100만\$ 미만 유망 기업을 100만\$ 기업으로 '27년까지 3,000개사 육성

- 수출액 100만\$ 미만 유망 초보기업을 대상으로 부족한 수출 노하우를 밀착 지원하여 수출 강소기업으로 육성
- 수출기업 선배 멘토단을 구성해 노하우 전수 및 심층상담('25. 500개사)

< 노하우 전수 : 국내·외 멘토단 운영계획 (안) >

구 분	선배기업 멘토링 : '25년 심층멘토링 500개사
국내 멘토단	① 지역별로 선배 멘토기업 선정(총 100명 내외) ② 후배기업과의 만남의 場 마련, 노하우 전수('25, 1,000개사) ③ 참여기업 중 선별(수출센터) 후 멘토와 심층상담 진행('25. 200개사)
해외 멘토단	① GBC가 해외 한인 네트워크 등을 통해 해외 멘토기업 선정 ② 해외진출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상담('25. 2,000개사) ③ 참여기업 중 선별(GBC,중진공) 후 멘토와 심층상담 진행('25. 300개사)

- 무역전문가 등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현장 밀착지원 ('25, 300개사)
 - * 지방 중기청(수출지원센터, 비즈니스지원단)에 수출관련 애로를 접수한 기업 중 심층 상담이 필요한 경우 현장 컨설팅 연계
- 국내 원팀협의체, 기업 상담지원 프로그램 활성화 ('25, 200개사)
 - * 한경협(경영닥터제), 중기중앙회·이노비즈협회(해외민간대사) : 홍보 및 상담 연결

◇ **혁신형 중소기업 및 강한 소상공인을 신규 수출기업으로 육성**

① (중소기업) 혁신형 내수기업 '25년 200개사 수출기업화

↳ '24.5월 글로벌 대책 : 혁신형 내수기업 '27년까지 1,000개사 수출기업화

- 내수에서 매출·고용·기술력을 인정받은 혁신기업*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수출전략 수립·이행 지원

* 벤처·이노비즈경영혁신형 기업, 초격차 스타트업, TIPS 기업 등 혁신성을 인정받은 기업

- 총 4단계에 걸쳐 글로벌 시장 진출전략을 수립하고, 바우처 연계

< 수출전략 수립지원 절차(안) >

구분	1단계	2단계	3단계	4단계	바우처 활용
내용	수출 역량분석 제품/기술분석	수출 목표시장 선정 및 동향분석	수출전략 수립 수출 로드맵 제시	수출전략 및 수출바우처 매칭	수출전략에 맞춘 수출바우처 활용

* 24년 18개사 시범운영 결과 : 높은 만족도(95.6점), 수출전략수립에 큰 도움

② (소상공인) 국내 시장에서 제품 경쟁력을 입증한 혁신 소상공인의 글로벌 진출 지원체계 수립 및 실행('25)

- 수출 소상공인 육성체계 : 수출교육 등 수출준비, 수출형 제품 개발 등 수출시장 진입, 수출자금*으로 스케일업 지원

* 수출 소상공인 대상 특별보증('25. 200억원), 민간투자 연계 융자('25. 100억원) 및 보조금('25. 300억원) 지원

< 수출 소상공인 육성체계(안) >

수출준비	수출시장 진입	수출기업 성장
▶ 국가별·분야별 수출교육 ▶ 지역별 수출아카데미	▶ 수출 유망 소상공인 발굴·육성 ▶ 수출형 제품 개발·고도화	▶ 민간투자 연계 융자·보조금 ▶ 수출 소상공인 특별보증

- 수출 촉진 : 글로벌 플랫폼 협업*, 소상공인 해외매장(1개소 추가)·정책면세점 입점 등 해외판매 거점 확충, 해외박람회 참여지원

* 아마존의 글로벌 셀링 전략 컨설팅(60개사) 및 풀필먼트 서비스(120개사) 제공

②

테크서비스 및 한류활용 K-전략품목 수출 본격화

① 테크서비스

◇ K-테크서비스 글로벌화 프로젝트 본격화

- 정책수요가 기존 제품 수출과 다른 서비스 수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「테크서비스 전용 수출바우처」 신설·운영 ('25, 140억원)

* 테크서비스 특화지원 서비스(클라우드 이용, 데이터센터 활용, UX·UI현지화) + 수출바우처 14개 서비스(조사/일반컨설팅, 전시회/행사, 통번역 등) 함께 지원

** 타분야와 융합·협업(IT+바이오 등)을 위한 컨소시엄 참여 허용

< 테크서비스 바우처 지원분야 >

분야	SW	솔루션	콘텐츠	ICT융합형
세부 분야	빅데이터, AI, SaaS, 메타버스 등	보안솔루션, 기업관리솔루션 등	애니메이션, 게임 영화/영상 등	에듀테크, IoT, 핀테크 등

- 테크서비스 중소기업의 해외 인지도 및 고객 확보 등을 위한 '테크서비스 K-혁신사절단' 운영 확대('24. 1회 → '25. 5회)

* 현지투자유치, B2B상담, 현지 바이어유관기관 면담 및 현지조사, PR 등 지원

↳ **베트남 사례** : 25개사 파견 및 150건 현지 상담 → **12개사**는 솔루션 제공, 설비 시공 등의 추가 사업 논의 중이며 **2개사**는 현지 업체와 수출 계약 체결('24.12월)

- 테크서비스 관련 전자·IT 분야 해외전시회 참여 지원 확대 ('24, 6개 → '25, 10개 내외)

- 중소기업의 테크서비스 수출 현황 파악을 위해 ICT 분야 중소기업 서비스 수출 통계 분석·공표 추진(한국은행, '25.상)

사례

• **웨이센(WAYCEN)** : AI기반 헬스테크 기업('19년 설립), 위·대장 내시경 영상을 실시간 분석진단을 지원하는 **의료 솔루션**을 베트남, 태국, UAE 등 의료기관에 수출, '24년부터 중동시장 본격 공략중, 아기유니콘('21), 초격차 스타트업('24)

② 한류활용 K-전략품목

◇ 글로벌 NO.1 K-뷰티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단계별 지원

수출초기 민관협업 유망기업 발굴, 자금·정보 부족 완화 등

- 수출 유망기업 발굴을 위한 'K-뷰티 100-UP 프로젝트' 확대
 - * 1) K-뷰티 크리에이터 챌린지 : 미국(아마존) → 동남아, 일본 등 유명 플랫폼 확대
 - 2) K-뷰티 슈퍼루키 위드영 : ('24) 20개사 → ('25) 100개사
- K-뷰티론* 신설('25.2, 200억원)을 통해 초기 생산자금 확보 지원
 - * 신제품 아이디어만 있으면 생산자금 부담 없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브랜드사-제조사간 발주서를 바탕으로 브랜드사에 발주 대금을 용자 지원
- 정책면세점에 명품 'K-뷰티관' 신규개소('25)로 마케팅 지원
- 민관협업 뷰티 컨퍼런스 개최('25.3), 수출규제 상담인력 확대(4→8명)

수출성장 수출규제 대응, 해외 마케팅 인력부족 해소

- 美 MOCRA 대응을 위해 '美 FDA 화장품 인증' 지원('25.3)
 - * 해외인증 패스트트랙 : ('24) 유럽 CE, 美 FCC 등 7개 → ('25) 8개 (美 FDA 화장품 추가)
- 할랄인증 표시 의무화 대비, 할랄인증 설명·상담회 확대('24, 2회 → '25, 15회)
- 화장품 해외 규제* 대응 역량 강화 지원(교육, 세미나, 컨설팅 등)^{식약처}
 - * 미국, 중국, 일본 등 주요 수출국과 중동, 남미 등 신흥 수출국 대상
- 'K-수출전사 1,000 프로젝트'를 통해 육성된 국내 외국인 유학생을 K-뷰티기업에 취업연계, 해외 마케팅에 활용('25.하)

글로벌 No.1 R&D, 투자펀드, 명품관 → 글로벌 프리미엄급 위상확보

- 피부미백, 주름개선 등 기능성 원료 및 친환경 용기 개발을 위한 'K-뷰티 R&D' 별도트랙 신설 및 지원('25.상)
- 화장품 분야 앵커기업과 'K-뷰티 글로벌 펀드' 신규 조성('25.상), R&D 및 M&A 등 질적 양적 성장 뒷받침
- 'K-뷰티 국제박람회'를 개최('25.5)하여 프리미엄급 中企제품 전시 및 빅바이어 초청으로 K-뷰티 세계적 위상 제고

◇ 중소기업 3대 新한류품목 선별 및 수출 중점 지원

- 한류 기반으로 수출성장 가능성이 높은 의류·신변잡화, 패션잡화(주얼리 등), 문구·완구 분야를 중소기업 新한류품목으로 육성 추진
 - * 중소기업이 수출을 주도하는 품목(품목별 수출의 50% 이상) 중 빅데이터 분석, 품목별 중소기업 수출현황(규모, 증가율)을 고려하여 선정
- 분야별 유통 대기업 등 민간 협·단체와 유망기업 협업 발굴·지원
 - 현지 글로벌 유통망(백화점·마트·H&B)을 발굴하고, 新한류품목 기업을 매칭·입점을 지원하는 ^{가칭}K-한류명품사절단* 운영
 - * 영문 상품제안서 마련, MD 1:1 상담, 계약협상 지원, 물류 및 수출절차 지원
 - 한류 연계한 해외 판촉전 개최('25. KCON 등 4회 내외) 및 관련 해외 전시회* 참여('25, 21회) 지원
 - * 호치민 국제의류 전시회, 홍콩 주얼리&젬아시아, 두바이 화장품 뷰티 전시회 등

< 중소기업 新한류품목 >

품목	주요 특징
의류·신변잡화	■ 해당품목 전체 수출에서 중소기업 수출 비중이 66.8% ■ '24년 중소기업 수출은 28.2억\$, 최근 5년간 2.5% 성장 ■ 한류강세지역(동남아) 빅데이터 분석 : 의류, 신발 등 높은 빈도 및 증가율 나타냄
패션잡화(주얼리 등)	■ 해당품목 전체 수출에서 중소기업 수출 비중이 86.2% ■ '24년 중소기업 수출은 17.3억\$, 최근 5년간 30.7% 성장 ■ 한류강세지역(동남아) 빅데이터 분석 : 악세사리는 높은 빈도 및 증가율을 나타냄
문구·완구	■ 해당품목 전체 수출에서 중소기업 수출 비중이 58.6% ■ '24년 중소기업 수출은 17.0억\$, 최근 5년간 2.3% 성장 ■ K-팝 인기 상승에 따른 문구·완구류 키워드 증가 중

◇ 한류 수출품목에 대한 해외 상표권·디자인 침해 대응(특허청 협업)

- 소비재 분야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 시 지재산 권리확보를 연계*하는 중기부·특허청 협업 지원체계 마련('25.상)
 - *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(중기부) -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(특허청) 연계 지원
 - ※ K-브랜드 위조상품 국내 산업 피해 추산('24, OECD공동조사) : 기업 매출액 축소 약 11조원
- GBC(중기부 소관) 입주기업 대상으로 해당국가에 소재한 IP센터(특허청 소관) 전문가가 지재산 전략 세미나 및 상담 등 지원

③

주력 · 신흥시장별 중소기업 수출 가속화

◇ 신흥시장별 전략적 지원 : 4대 신흥시장 우선 추진

- 복잡다기해지는 국가별 경제정책 및 수출환경에 따른 중소기업 수출 대응부담 완화를 위해 신흥시장별 전략적 지원 추진
 - 수출현황 및 증가율, 국가별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아세안, 중동, 인도, 중남미 대상으로 전략품목을 선정하고 시범 운영('25)
- '25년 시범 운영 후 다른 신흥국가 등으로 전략 지원 확대

< 국가별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(안) >

■ 신흥시장별 전략품목

구분	아세안	중동	인도	중남미
전략 품목	반도체, DX	소비재, 테크서비스	기타기계류 등 중간재	소비재, 의료기기
선정 사유	디지털 프레임워크 구축 반도체 집중 육성 중	한류 확산, 탈석유화 및 AI 등 투자 정책 확대	제조업 활황, 중간재 수출 활발	한류 확산 의료정책 확대

* 최근 5년 권역별 중소기업 수출증가율(%): (전체) +3.4 vs. (인도) +7.4, (중남미) +7.2 (중동) +7.0 (아세안) +3.2

■ 프로그램 운영(안)

- (사전준비) 국가별 특성에 맞춰 K-혁신사절단을 현지진출 및 투자유치형, 현지 유통망 편입형, 정부조달 참여형 등으로 구분 운영
- (현지지원) 중소기업 해외거점(GBC·재외공관 원팀 협의체)을 통해 대상 국가별 특화 지원 프로그램 운영
- (정보제공) 국가별 시장현황, 현지진출 절차, 정부 제도·유통구조 등 정보 제공

◇ 신흥시장으로의 수출 다변화 중점 품목 선별 · 중점 지원

- 중소기업 수출 주력시장 (미·중·일·베)에서 수출이 감소(예정) 중이나, 수출국 다변화를 통해 반등이 가능한 14개 품목* 선별 지원

* '19~'23년(5년간) 중소기업 수출 100대 품목 중 중소기업이 수출을 주도하고 제품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나, 주력 수출국(미·중·일·베)에서의 수출 감소품목

▪ 단기 **품목별 수출국 다변화*** 및 장기 **고부가가치화**** 지원

* 품목별 수출 유망국가 정보 제공 + 수출 컨설팅(GBC 활용)

** 플라스틱, 세라믹 등 소재·부품·장비 기술개발 지원 ('25. 185억원)

<수출 다변화 중점 품목>

플라스틱제품(폴리에틸렌 제품), 금형(프레스용·스탬핑용 공구), 건설광산기계(유압 브레이커), 플라스틱제품(이차전지 제조용 격리막), 인조섬유(폴리에스터) 등

○ 수출 현황을 모니터링하며, 수출 다변화 중점품목 지속 보완

◇ **주력시장으로의 지속 수출 확대 촉진**

○ (미국) 관세 등 트럼프 행정부 대응 지원체계 운영, 美 빅테크 기업과의 협업 등을 위한 스타트업 등의 현지진출 지원 강화

* 엔비디아, MS, 앤시스, 앤시스_스페이스 등 美 빅테크기업과 스타트업과 협업 지원 확대

○ (중국) 對중국 전체 수출은 감소*중이나, 일부 품목**은 증가 추세로 중국 시장변화 등 분석 후 유망품목 선별지원 추진('25.하)

* 對중 수출액('18→'24, 억\$) : '18.248 → '19.232 → '20.227 → '21.239 → '22.215 → '23.186 → '24.184

** 對중 품목별 수출액('18→'24, 억\$) : (반도체제조용장비) 11.7→16.9, (동제품) 3.1→6.7

○ (베트남) 고급 소비재(뷰티, 의료·보건용품 등) 수요 확대*, 반도체 글로벌기업의 베트남 투자확대 등에 따라 관련 수출 지원 강화**

* 중산층·MZ세대 확대 등에 따라 지속적인 수요 확대 예상 (무역협회, '24.11)

** 베트남 소비재 관련 전시회 참가('25, 3회), 반도체 관련 바이어 발굴·매칭 등

○ (일본) 日 정부의 디지털 전환 기조* 및 고령화 대응 디지털 헬스케어 확산 등을 활용하기 위한 스타트업 진출 적극 지원**

* 일본 정부는 '22년 디지털청 설립 후 규제 개혁, 스타트업 육성 등 추진

** 한일 공동 펀드 조성('24.12), 현지 스타트업 IR 개최 및 네트워킹 등

3. [지원 인프라] 네트워크 · 협력기반 글로벌화 촉진기반 마련

- ❖ 국내외 원팀 협의체를 활용해 정보제공 및 해외진출 애로해소 추진
- ❖ 주요 국가별 정책협력 채널을 확대해 정책·교류 협력 강화

①

중소벤처기업 글로벌화 민·관 원팀 협의체 고도화외교부 협업

◇ 중소기업 글로벌화 애로해소 및 정보제공 기능 강화

- 재외공관 주재, 공공기관·기업 등이 참여하는 ‘중소·벤처기업 지원 협의체’를 통해 현지 진출 과정의 애로해결, 정보제공 등 협력 강화

< '24년 재외공관 원팀 협의체 실적 및 지원사례 >

구분	주요내용
재외공관 협의체 운영실적(25.1말)	• ① 공관장 주재 회의 개최 64건, ② 협의체 참여기관의 지원을 통한 기업 애로해소 361건, ③ 주재국 정보제공 515건
지원사례	• 영국 진출 희망 스타트업 A사(패션 플랫폼)는 현지진출을 위한 제도 파악 및 법인 설립 등에 애로 → ‘런던 원팀 협의체’에 도움 요청 → 주영국대사관을 중심으로 현지 비즈니스 정보제공(KOTRA), 현지 법인 설립 및 비자 신청 지원(현지 로펌), 영국 현지계좌 개설지원(하나은행 런던지점), 유럽 VC 3개사 및 투자기관 연결·영국정부 투자유치 프로그램 연결·런던 정착 유관기관 연결(KVIC) → 영국 현지법인 설립 완료(24.7.10)하고 성공적 현지 진출

- 재외공관 협의체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국내 원팀 협의체 보완

* (실적) 수출센터와 협·단체 애로해결 : 총 84건 애로발굴·해소, 4건은 재외공관 협조

** (보완) 협·단체 누리집에 글로벌화 애로접수 배너 확대 설치 등

- 원팀 협의체에서 발굴한 해외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‘글로벌 네비게이터’ 구축(25.2)

- 현지 법인설립 및 해외인증 획득 절차 등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려는 중소기업이 알아야할 정보를 종합 제공

* 제공정보 : 법인설립 절차, 해외 인증획득절차, 해외 정부조달 절차, 현지 네트워크, 해외진출 성공 사례, 해외진출 FAQ 등

- 중소기업 4대 수출국(미국, 중국, 베트남, 일본) 대상 ‘25.1분기 우선 구축(25, 10개 국가로 추가 확대)

◇ 재외공관을 활용한 현지 중소벤처기업 지원 프로그램 확대

- 재외공관이 현지 진출기업에 ▲정보제공, ▲협력기회 발굴, ▲애로해소 등 현지 안착을 직접 지원('25년, 7억원)

* 주재국 시장환경과 현지 진출기업의 수요를 고려하여 유망 산업분야를 선정하고 공관별 비즈니스 포럼 운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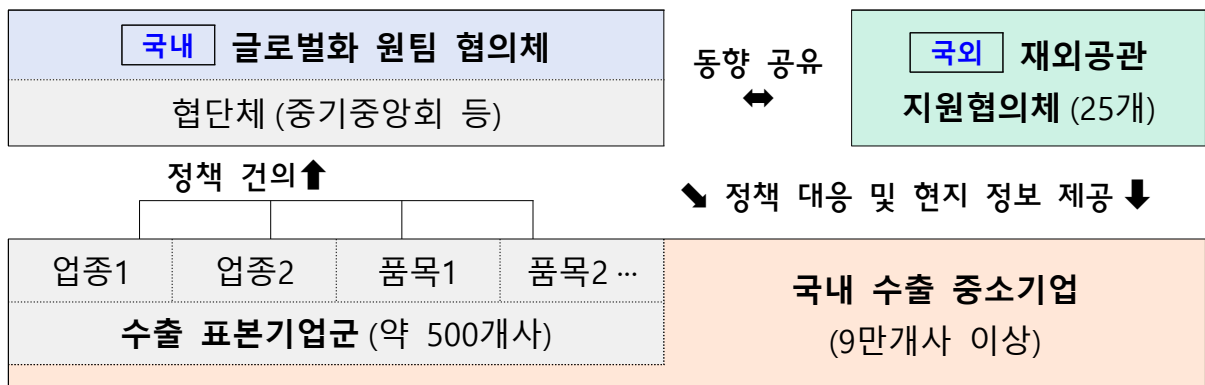
- 유망 스타트업의 주재국 특화 프로그램(IR 투자유치, 네트워킹 등)을 통한 현지 창업 생태계 편입 및 진출 지원('25년, 3억원)

◇ 원팀 협의체 참여기관 등과 함께 현장 소통체계 구축

- 현장의 목소리를 적기 파악·모니터링하기 위해 중소기업 주요 업종 (품목)별 대화채널 구축* ('25.하)

* 협단체(중기중앙회, 15개 수출지원센터 등) 내 업종(품목)별 분과 협의체 구축

< 현장 소통체계 >



- 수출 기업군별 대표 표본(약 500개)을 구축하여, '수출 중소기업 경기실사지수(BSI)' 도입 추진 ('25.하)

※ 美 수출에 영향받는 품목 등 현안 공동대응(품목별·국가별 정보 확산 등)

②

중소·벤처 분야 글로벌 정책 협력 채널 확대

◇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 개최를 통한 정책 교류·협력 확대

- '25년 우리나라가 APEC 의장국을 수임함에 따라 21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 개최('25.9.1~5, 제주)
- 창업·벤처·소상공인을 아우르는 관련행사*를 함께 개최하여 우리 중소기업의 혁신성 홍보 및 글로벌화 발판 마련
- * 기술경영혁신대전, 동행축제, 중소기업 혁신 네트워크 포럼 등

◇ 주요국 중소·벤처 분야 글로벌 정책 협력 강화

- 주요국과 정책협력 채널 확대를 통해 해외 진출기업 애로해소
 - 인니, 말련 등과 양국 공동 중소벤처 위원회 신설 추진
 - * (인니) 중소기업협동조합부와 정책협력 채널 논의 진행중('24.5월~)
 - (말련) 기업가협동조합부와 MOU 체결 논의중('24.10월~)
 - 일본 등 既 구축된 협력채널은 교류·협력 확대
 - * (일본) 수교 60주년을 계기로 정책협의회 개최 및 중소벤처 분야 교류 추진
- 지역별 글로벌 혁신특구를 활용하여, 일본 등 조기성과 창출*이 가능한 해외 거점과의 협력 강화 및 추가 해외 거점 확보
 - * 예시 : 日 바이오 클러스터 쇼난 iPark에 韓 벤처기업 입주 및 韓·日 공동 신약개발

< 추가 해외 거점 확보(안) >

구분	전남(직류산업)	부산(차세대 해양모빌리티)	강원(AI헬스케어)
구분	•현재 : 독일 •추가 : 미국 인증기관	•현재 : 영국 •추가 : 해상실증 항로국가	•현재 : 에스토니아 •추가 : 同국가 내 실증병원

V. 향후 추진일정

정책 과제	부처 · 기관	추진 시기
1. [현안대응] 트럼프 2기 대응 지원체계 운영		
■ 수출 중소기업 애로 완화	중기부/ 원스톱수출 ·수주지원단	‘25.1~
■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 해외진출 지원	중기부	‘25.2~
2. [구조개선] 중소기업의 탄탄한 수출구조 3대 전략 추진		
■ 안정된 수출 중소기업 확대·다양화	중기부 (한경협, 중기중앙회 등)	‘25.2~
■ 테크서비스 및 한류활용 K-전략품목 수출 본격화	중기부/식약처 /특허청/ 한국은행	‘25.2~
■ 주력·신흥시장별 중소기업 수출 가속화	중기부	‘25.상
3. [지원 인프라] 네트워크·협력기반 글로벌화 촉진		
■ 중소·벤처기업 글로벌화 민·관 원팀 협의체 고도화	외교부/ 중기부	계속
■ 중소·벤처 분야 글로벌 정책 협력 채널 확대	중기부	‘25.하